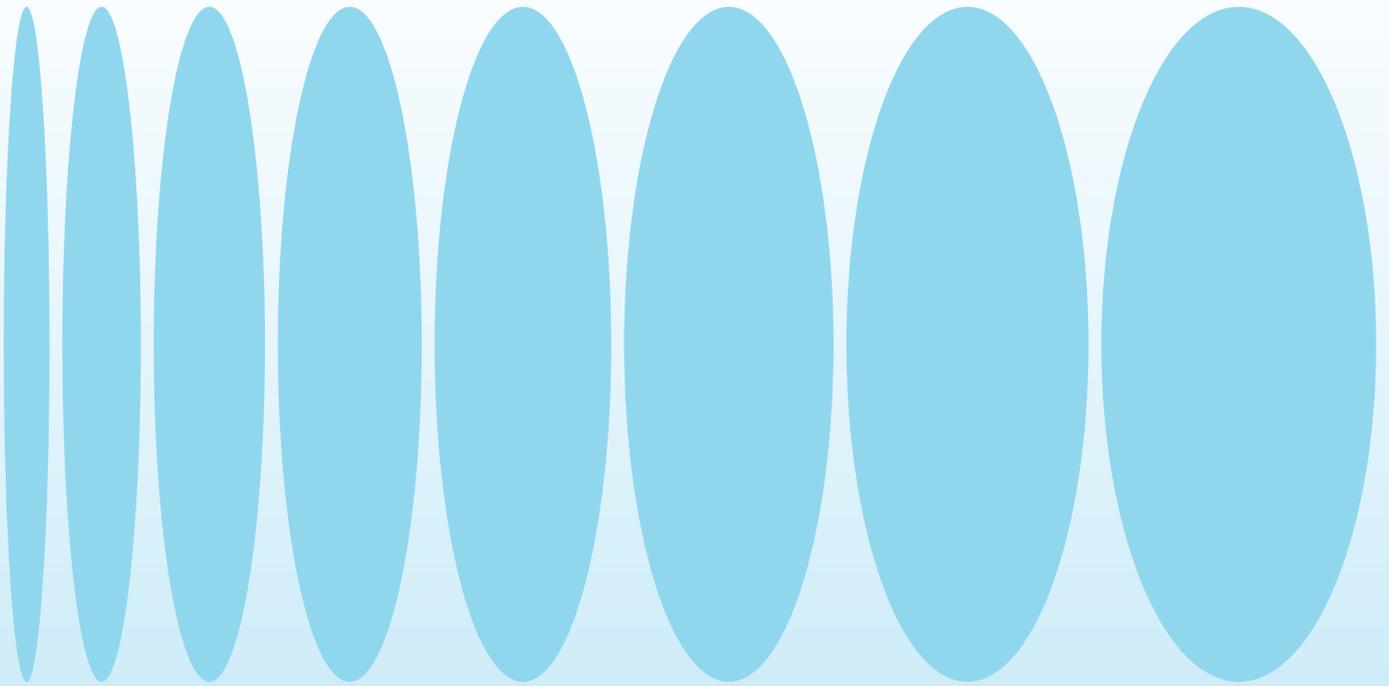


02

디캠프

지역 인사이트 인터뷰



펀드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Interview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을 찾으면 첫 손에 꼽히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다. 실제와는 별개로 대중들이 인지하는 이미지는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상반되는 지점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스타트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투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디캠프는 전북에 위치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 (스타트업 포레)의 한 회의실에서 전국에 유이한, '공무원'으로서 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두 펀드전문관을 만나보았다.

어떻게 펀드 전문관¹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작년에 제가 충청남도의 펀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충청남도는 출연기관을 통해서 펀드 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출연기관에서는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벤처펀드 조성하고 출자에 힘써달라. 그러면 출연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펀드출자라는 업무가 출연기관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 등 전국을 다니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리게 된 결론은 '이 업무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수행해야 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펀드 관련 업무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엮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일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었죠.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연기관을 통해서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충남의 전반적인 산업을 아우르면서 움직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지역 내에도 다양한 기관²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면, 아무래도 도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03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김상은 전문관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동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던 펀드의 경우 위탁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게되면서 구조를 살펴보니, 실제로 위탁을 통해 펀드를 관리하게 되면 자금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수행하고, 펀드 운용사는 위탁을 받은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수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벤처펀드의 규모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펀드전문관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04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¹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선별하여 보직하는 공무원의 직위

²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문관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공직사회 내에 벤처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는 벤처펀드라는 개념이 이해관계자 혹은 공직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더러웠습니다. 그러다보니 펀드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설명드리고,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저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이 이 업무의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도의회에서 '펀드 운영 기준을 조례에 담아라.' 등의 요청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펀드의 규약은 조합별로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담는 경우 유연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린 경우도 있었구요. 어떤 의원님께서서는 펀드 출자를 지원사업 내지는 보조금으로 인식하셔서 '기존에 지원사업을 수혜했던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하신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의 경우에는 40여분이 계시고, 관련 상임위 위원도 8분이나 되셔서 한분 한분 설득하고,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드리는 일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그래서 한번은 정말 지자체의 펀드 출자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게, 도내에도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벤처펀드라는 수단이 친숙한 것은 아니다 보니 각 펀드를 요구하는 부서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는것은 너무 어렵고, 문서나 녹취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많은 공무원과 관계자분들이 '벤처펀드'라는 수단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존의 구조와는 어떻게 다르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일을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김상은 전문관님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의회와 도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기직인 도의원님들을 서포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전문위원님들이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전문위원 분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분들께 벤처펀드에 대해서 잘 소개드려서 이 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의원님들의 벤처펀드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히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전문위원님은 2시간 가까이 되는 설명을 듣고나서는 매우 흥미롭고, 멋진 정책을 잘 수행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도정질문 안건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도 했죠.

최근 펀드 운용사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운용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운용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만 페널티를 주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연계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지자체에서는 VC나 AC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모태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퍼런스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운용사관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모태펀드가 많이 흡수해주는 것 같습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가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펀드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투자 비중이 아닌 곳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펀드 전체적인 수익률도 제고하는 부분이 있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자금의 규모가 확실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보수 차원에서 모태펀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충청남도 김상은 펀드전문관, 전북특별자치도 홍석인 펀드전문관, 디캠프 전정환 어드바이저

지역에서 벤처펀드에 대한 관심도는 어떤가요.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제가 지난해 말에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했는데, 해당 대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핵심 조성자'입니다. 지역의 창업, 그리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이끌어낼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핵심조성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광역지자체가 해야한다는 내용을 해당 대책에 담았는데, 핵심조성자를 탐색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해, 도 내외의 우수 사례로 연결하는 일, 이러한 핵심 조성자들이 벤처 생태계에 참여하게 하는게 지역에서 기초보다 광역지자체가 더 잘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근 전북에서는 우리 지역의 핵심조성자 후보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 조성자로 지역의 향토기업이 역할을 잘 수행한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포스코와 에코프로 같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핵심 조성자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도지사님부터 담당자인 저까지 모두가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저는 매력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자발적인 참여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벤처투자 생태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충청남도에 오면 이러한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한 가지 방식만이 아닌 전방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홍석인 전문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충남에도 벤처협회가 있는데,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충남의 핵심 조성자를 발굴해야 한다. 먼저 성장한 선배 기업들이 투자 생태계나 펀드 출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작업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충남에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인식과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저희 지역에서 핵심 조성자 중 한 분을 발굴했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분은 지난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던 시점에 인수위원회의 한 분과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역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형태의 정책 수단을 다변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주시면서 여러가지 안을 제안해주셨었습니다.

그 제안주셨던 내용을 검토했던 담당자가 바로 저였는데요, 해당 제안이 당장 추진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서 내부의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그 위원장님을 뵙고 내리 세 시간을 위원장님과 함께 제안하신 방법이 당장 수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주셨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민간위원이었던 위원장님의 의견과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저희 팀장님,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내에 전달이 되고, 지사님께도 전해져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벤처펀드에 대한 진심이 조직 전반 뿐만 아니라 인수위와 지역 내 여러 관계자분들께 전달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핵심 조성자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해당 위원장님은 전북의 벤처펀드 조성 시에도 흔쾌히 펀드 출자에 응해주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벤처투자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 본사를 두느냐, 진심을 두느냐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저는 기업분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고, 주로 VC분들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VC운용인력분들이 충남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지, 아니면 '충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인지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³에서는 '장소애'³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소애'라는 개념이 VC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적절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가 주최했던 어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도내 기업이 아닌 타 지역 기업의 대표님이 전북 커뮤니티 행사에 오신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분은 여기에 왜 참여하셨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갔는데, 이 분이 또 계신거예요. 한 번은 기회가 되어서 그 대표님께 "대표님은 전북의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라고 여쭙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북에 와서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해볼 기회가 생겼는데, 여기 분들은 적극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전북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연고도 없는 지역이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점점 생기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에 몇 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 분들과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사실 저의 1차 고객은 펀드 운용사인데요.

한 번은 도내에 벤처투자 심사역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북의 출자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저도 일정이 매우 바쁜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명단을 보니, 처음 만나는 심사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북의 출자 방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셨던 심사역 분들도 굉장히 놀라시면서, 전북도의 전문관님은 이 분야에서 정말 진심인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심사역님이 운영하는 지역 펀드가 결성되었는데, 해당 펀드에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달성하고, 전북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진정성이 이 심사역님과 또 이 분을 통해 투자를 받는 분들께도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저는 사실 정말 의미, 진심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의 이런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서 충청도와 투자사가 원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 니즈만 요구하는 것 처럼 보일까봐 이런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했었는데요, 홍석인 전문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자신감있게 이런 모습을 드러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되네요.

³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브랜드 펠드, 이연 헤서웨이 저 / 이정원 옮김 / 전정환 해제)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지역 및 장소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가지는 애정과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함.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펀드전문관이 되고자 하는 후배에게 한 가지 조언한다면.

홍석인 전북특별자치도 펀드전문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펀드관리라는 업무를 전부 전문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도 더 키워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문관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진정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승진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것이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설득할 사람도 너무 많지만, 제가 최대의 길을 닦아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앞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김상은 충청남도 펀드전문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슬슬 공무원의 중간 세대 정도가 되다 보니 새로 공무원이 되어 오는 친구들이 보람없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저 선배는 정말 재미있게, 또 보람있게 일한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픈마인드,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함께한다면, 이 업을 통해서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Insight

전정환 디캠프 지역 어드바이저

지역 창업생태계와 투자생태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펀드전문관 제도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다.

전북 홍석인, 충남 김상은 펀드전문관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커뮤니티', '진심',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지역 투자 생태계를 유기적 공동체로 바라보는 그들만의 관점을 보여준다. 펀드전문관들의 진정한 기여는 단순히 지역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펀드 조성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창업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 투자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접근법이다.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이들은 막막함과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 때 디캠프의 관심과 대화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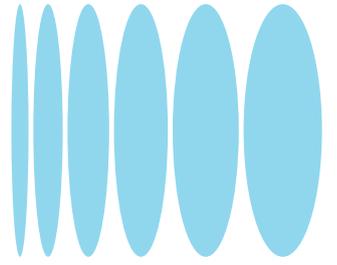
지역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공무원들의 노력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혁신적인 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창업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 세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 사원기관 19개 금융기관이 2012년 5월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성장을 돕는 공간', '세계와 지역의 연결'이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발행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박영훈 대표이사
주소	선릉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1, 새롬빌딩 2층 마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8층 부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 부산유라시아플랫폼 A동 201호
이메일	contact@dcamp.kr
편집	사업실 Business Development 이재영 매니저
디자인	IT커뮤니케이션팀 최아름 매니저
홈페이지	www.dcamp.kr
발행일	2024년 7월 1일
SNS	youtube.com/@DCAMPkor instagram.com/dcamp_official/ facebook.com/dcamp.kr



**연결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이끌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